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4. 9.(수) 16:00
(지 면) 2025. 4. 10.(목) 조간

한발 앞선 사전대비로 빈틈없는 풍수해 대비태세 확립

- 관계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한 ‘여름철 사전대비 점검 TF’ 운영
- 기관별 풍수해 대책 점검 및 산불 피해지역 2차 피해 예방 대책 논의

□ 행정안전부는 4월 9일(수)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‘여름철 자연재난(태풍·호우) 사전대비 점검 TF’ 1차 회의를 개최*했다.

* 참석기관 : 중앙부처(국조실, 교육·과기정통·국방·문체·농식품·산업·복지·환경·고용·여가·국토·해수·중기부, 경찰·소방·국가유산·농진·산림·질병·기상·새만금·해경청, 방통위), 17개 시도

○ 정부는 여름철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‘여름철 사전대비 점검 TF’를 구성하고, 본격적인 우기 전(6월 초)까지 격주로 분야별 점검 안건을 선정해 논의한다.

□ 이번 회의에서는 기관별 주요 풍수해 대책을 점검하고, 최근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안전관리대책도 논의했다.

○ 행정안전부는 비상대응체계 구축, 취약지역 및 시설 발굴·점검, 취약계층 보호방안 마련, 주민대피 교육·훈련을 비롯한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했다.

- 환경부는 홍수 위험을 신속히 인지하기 위한 지능형 CCTV를 시범 도입하고, AI를 활용한 홍수예보를 고도화한다.

- 국토교통부는 비탈면 IoT 센서로 도로사면을 관리하고, 지하철도 침수에 대비한 대피 유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.

○ 아울러,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규모 산불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을 중심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주민보호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.

- 산림청은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위험성 긴급진단과 복구사업을 진행하고, 대피소를 비롯한 주민 대피체계도 재정비한다.

□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“정부는 우기 전까지 풍수해 대비태세를 빈틈없이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, 분야별 사전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	책임자	과 장	이상원 (044-205-5230)
		담당자	사무관	김준하 (044-205-5231)
		담당자	사무관	오병곤 (044-205-5234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